



환경적 어려움을 딛고 이룩한 값진 보석, 무재해

— 세풍로공업(주) —

차 창너머로 보이는 남해 바다는 그 푸르름의 매력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가운 여수의 바닷바람은 푸르름의 매력과 새로 도약하는 을유년의 희망찬 기운을 함께 담아 더 힘차고 생동감 있어 보이는데도 모른다.

작년 11월 13일 무재해 8배수 달성 후,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정열로 무재해를 향해 정진하는 세풍로공업(주)(대표이사 이철수)에서 그들의 안전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산재한 위험 속에서도 기본 실천과 원칙 준수로 무재해 8배수 이룩

1990년 11월 1일 광양 3기 고로설비 가동과 함께 설립된 세풍로공업(주)는 고로 3개 공장 and 코크스 2개 공장의 내화물 보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이다.



고로현장에서는 출선 종료 후 휴지된 탕도 및 RUNNER를 해체, 형틀을 설치후 부정형 내화물을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는 작업과 주상 안전시설물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코크스 현장에서는 탄화실 및 노상설비 내화물 보수 작업과 부대설비 급유금지 및 환경관련 개선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온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화상 및 협착, 추락 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지난 11월 이룩한 무재해 8배수는 더욱 값진 보석인 것이다.

1996년 현 이철수 사장의 부임 이후, 무재해 운동은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평소 기본의 실천 생활화를 강조하는 이철수 사장은 30년전에 일어났던 사고가 지금도 일어남을 지적, 기본 실천과 표준작업 준수,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업시작 전·중·후 항상 확인하고 정리정돈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관리자는 현장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비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근로자는 그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곳 세풍로공업(주)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회사의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더욱 힘쓴다.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한 인명손실로 회사의 경쟁력 자체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작업장내 설비별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당일 진행되는 작업 중 위험도가 가장 높

은 작업을 선정, 요소 및 작업에 따른 철두철미한 안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작업 토론회, 작업자 관찰활동, 안전월례반성회, 안전제안포상 및 연말 안전인 포상제도, 안전랭킹 심사제도 등 무재해 현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트로공업(주) 그들의 활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도 사전에 철저히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은 이곳은 요통재해 등 근골격계 관련 질환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관심은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

법이 입법예고 되기도 전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장내 환경을 미리 측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 행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허리 안마기, 진동방지공구 등의 장비 보유와 연 1회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듯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와 그에 따른 실천이 오늘의 세트로공업(주)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곳 식구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무재해 8배수를 달성하였지만 현재 추진 중인 안전활동들을 보다 체계화·정량화하고, 외국의 선진안전기술을 도입하여 무재해 사업장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활기차고 생동력 넘치는, 일할 맛나는 신바람 일터를 위해 노사가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하는 이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무재해 일터는 이미 조성되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무재해 10배, 20배를 향해 내딛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한 걸 가벼워 보인다. 

〈성호연 기자〉

